

지역 매아리

완주 대둔산 산악문화 축제 성황리

호남의 금강산, 대둔산에서 산악문화 축제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대둔산 잔디광장에서 펼쳐진 산악문화축제는 대둔산 관광의 흥과 멋을 한껏 업그레이드했다.

완주군생활문화예술동호회네트워크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대둔산의 빼어난 경관을 배경으로 동호인들의 문화 공연이 어우러진 힐링 콘서트로 진행됐다.

통기타, 난타, 민요, 우크렐레 공연, 완생동네 댄스페스티벌, 마술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펼쳐지고, 전라북도 신나는 예술버스 공연(트로트 비보이, 밸리댄스, 트로트 가요, 오케스트라 공연)까지 더해져 공연 내용이 더욱 풍성하게 진행됐다. 또한 다양한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제기차기, 쌍륙, 철교 등 전래놀이와 천연비누 체험 등 완생동네 공예분과 및 시각분과의 참여로 체험거리가 가득하여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였다.

/원주=이종복 기자

김제시 다함께돌봄센터 개소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지난 25일, 김제시에서 설치하고 사회복지법인 길보른재단(대표이사 조창연)에서 운영하는 "김제시 다함께돌봄센터(길보른 빛누리)"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은 박준배 김제시장과 조창연 길보른 대표이사, 김중희 국회의원, 시의회 의원, 사회복지협의회·협회장 및 관계자와 아동·학부모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길보른어린이집 축하공연, 국민의례, 아동권리헌장 낭독, 경과보고, 환영사, 축사, 후원금 전달식과 테이프 커팅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식이 끝난 후 다함께돌봄센터 곳곳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맞벌이 가구는 계속 늘어나는 데 우리 아이들은 수업이 끝나고 집에 들어가 봐야 돌봐줄 사람이 없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요즘, 다함께돌봄센터를 통해 지역중심의 주도적인 돌봄 체계 구축 및 초등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우리시에서도 사회복지법인 길보른재단과 위·수탁협약 체결을 하였고, 건물을 신축하여 10월 25일에 개소하게 되었다.

김제시 신풍동 금성로 93(신풍동 613-3)에 위치한 김제시 다함께돌봄센터(길보른 빛누리)는 118.65㎡의 면적에 활동실과 사무실, 조리실 등을 갖췄으며, 만6세부터 12세의 맞벌이 가정 아동(정원20명)을 대상으로 이용료 10만원을 받아서 학기 중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방학 중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센터 이용료 10만원은 프로그램활동비(생활교육, 독서지도, 신체활동, 음악·미술·체육·과학 활동 등)와 현장학습비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한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지평선축제 결산

잊지못할 농촌체험의 진수

시, 국민들의 쉼터 제공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110여개 체험프로그램 볼거리, 체험거리 다채

지난 9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벽골제를 비롯한 김제시 일원에서 개최된 제21회 김제지평선축제가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찾아오며 성대하게 마무리 됐다.

'Over the Horizon! 건강한 축제! 신나는 축제!'라는 슬로건으로 10일간 펼쳐진 올해 축제는 5개 분야 68개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글로벌 육성축제의 명성 그대로 선보여 '역시 김제지평선축제'라는 평이 이어지고 있는데 김제지평선축제의 매력은 무엇일까?

먼저, 한국 전통농경문화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김제지평선축제의 대표 프로그램 '벽골제 전설 쌍룡놀이', '풍년기원 입석 줄다리기', '쌍룡 햇불 퍼레이드'에 대중성을 가미하여 관광객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여 프로그램 완성도를 높였으며, 농경문화를 체험 프로그램으로 재구성한 '모락모락! 아궁이 쌀밥짓기', '도롱이 워터터널', '세계인 대동 연날리기', '황금들녘 달구지 여행' 등의 프로그램은 소중한 인연들과 함께 온 관광객들에게 추억을 선물했다.

오감만족 체험왕국이라는 명성에 걸맞은 110여개의 체험프로그램은 10일간 매일 와도 색다른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탄탄하게 준비



지평선축제기간 쌍룡광장에서 정동예술단 김민중 줄타기 공연 사진

했다. 이번 해는 다양한 장르의 공연도 준비했다. 소풍나온 듯한 느낌으로 돛자리를 준비하여 공연을 감상하는 파크콘서트에서는 가요, 밴드, 국악 등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졌다.

또한, 제21회 김제지평선축제는 관광객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넓은 축제장을 구성했다.

먼저 프로그램 등 축제 정보를 중앙광장과 쌍룡광장의 LED로 송출하여 관광객의 편의를 도왔으며 곳곳에 있는 쉼터와 정수기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기는 관광객들에게 잠깐의 여유를 갖게 했다.

글로벌축제답게 올 해 행사의 전반적인 내용이 담긴 리플릿은 4개국어를 준비했다. 우리 한국어는 물론 영어, 중국어, 일본어까지 번역하여 해외방문객도 쉽게 축제를 접근할 수 있었다.

더불어, 주차장 추가 확보와 셔틀버스 운영으로 축제장에 용이하게 올 수 있었다. 특히 셔틀버스

는 김제 시내에서 벽골제까지 접근이 쉽고 사람들과 어울려 가볍게 마 걸리 한잔하기에도 부담이 없다.

시내에서도 작은 축제장이 열렸다. 주요 공연인 방송사 공연은 물론 '시민과 함께하는 가을·추억여행', '전국 실버 장기자랑 경연대회' 등 굵직한 공연을 김제시내로 옮겨 관광객들을 끌었다.

이렇게 축제전반에 걸쳐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효율적으로 구성, 관광객들을 끌어 모아 남녀노소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축제로 성공한 김제지평선축제는 새롭게 변화된 공간구성과 20여년간의 운영 노하우로 한층 더 깊어진 농경문화의 진수를 보여줬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대한민국 글로벌 육성축제인 제21회 김제지평선축제가 성공적인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한마음 한뜻으로 동참해준 김제시민 여러분과 축제장을 방문해준 관광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함을 전한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이산모자원 '나눔 숲' 조성

완주군, 녹색자금 공모 선정 1억3천만원 확보

완주군이 녹색자금 공모에 선정돼 녹색복지환경을 조성하게 됐다.

완주군은 산림청 산하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주관하는 2020년 녹색자금(복권기금)공모사업에 선정돼 총사업비 1억30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녹색자금 공모사업은 복권 및 복권기금에 따라 복권수익기금으로 조성되는 사업으로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사업은 노인, 장애인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 숲과 쉼터를 조성하게 된다.

시설 이용자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화합과 소통의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전액 녹색자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에서는 이산모자원이 선정돼 입소가족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 증진을 위해 총 1,200㎡ 면적에 나눔 숲이 조성된다.

이산모자원은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에게 가족해체의 위기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가정과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설립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다. 현재 12세대 33명이 이용하고 있다. /원주=이종복 기자

김제시, 혁신추진단 워크숍 추진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합동평가 지표 담당 공무원을 비롯한 혁신추진단 30여명을 대상으로 특화된 혁신사례 벤치마킹과 혁신 공직문화 조성 주제로 워크숍을 실시했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 6월, 울산 남구의 '찾아가는 정신건강 상담차량 사업' 벤치마킹을 통해 김제시 보건소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례를 혁신추진단과 함께 공유하고 내년도 공모사업에 적극적인 아이디어로 응모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특화된 혁신사례 우수 정책지는 김제시의 여건과 정책방향성과 부합되는 3곳을 우선하여 실시하였다.

▲동네 홈몰인 페·공가를 가족주에게 무상 임차하여 자원봉사단체, 재능기부자들의 도움으로 집수리 후 저소득 주민에게 무상 임대하는 대구 동구의 '행복동지 사업' ▲공공기관 내 유휴 공간 및 민간시설 내 무상임대 가능한 공간을 활용하여 주민참여 공유경제와 노인일자리 창출한 대구 달성군 '장난감 도서관' ▲참업지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 확대와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는 울산 남구의 '특목과도리 청년창업 사업' 등이다.

또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진현 전문위원을 초빙하여 지방자치시대 뜨겁게 대두되고 있는 자치분권과 포용국가라는 주제로 강의가 있었고, 행안부 정부혁신 강사로 선정되어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성욱준 교수의 사회적 가치 구현, 협력하는 공직문화, 공정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등 정부혁신 기반에 대해 사례 위주의 교육이 진행되었다.

아울러 정부 합동평가 위원을 역임한 한국지식서비스 이성한 연구원장의 지자체 합동평가 대응 방안에 대해 노하우 전수 및 참석자간 토의의 시간을 가졌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건설기계 대상 ... 이달 31일까지 신청

완주군이 미세먼지 등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추진한다.

군에서는 7억3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노후경유차와 건설기계 100여대에 대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노후경유차 매연 저감장치는 배출가스 5등급인 차량에 한해 차종에 따라 최소 372만원에서 최대 1천32만원까

지 지원된다. 건설기계의 경우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 제작된 덤프터, 크리프트미스터, 콘크리트 펌프트럭 등을 대상으로 종류에 따라 적격은 777만원에서 최대 1천57만원까지 지원된다. 또한 미세먼지(PM)와 질소산화물(Nox)을 저감할 수 있는 PM-Nox 동시 저감장치의 경우 2002~2007년식 대형 경유차가 해당되며 지원금액은 1천520만원이다.

10%정도의 자기부담금이 있지만 생계형 차량일 경우 자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된다. 신청은 이달 31일까지 매연저감장치 제작사에 부착 가능 여부를 사전에 협의한 후 신청하면 군에서는 대상자를 검토후 부착 지원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노후경유차에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게 되면 미세먼지·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감소시켜 대기질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주=이종복 기자

김제시 '지평선 김장담그기' 체험객 모집

생활개선 김제시연합회(회장 심명순)는 회원들이 생산한 배추, 고추, 마늘 등 농산물을 이용하여 김제시민들을 대상으로 11월 16일 벽골제 신청문 앞 한옥정터에서 "지평선 김장담그기 체험 & 사랑나눔"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장담그기 체험객 모집은 김제시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가족 체험객도 환영한다. 모집기간은 11월 11일까지이고 전화예약을 통해 선착순 200명을 모집한다. 체험비는 1인당 2만원이며 김치통 8.5l를 무료로 제공하고 체험을 통하여 직접담근 김치를 가져갈 수 있게 준비했다.

생활개선회 심명순 회장은 전통 김장문화 확산과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하여 생활개선 회원들과 절임배추와 김장소를 정성들여 준비하고 김장재료의 손질방법과 김장담그기를 설명하는 내용으로 행사를 진행한다.

또한 김장담그기 체험행사 후 생활개선회원들은 절임배추 1,000포기를 김장하여 읍면동 생활개선 회장들을 통하여 지역 소외계층 주민들에게 사랑 나눔을 실천할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N치즈**

벨기에 출신 지평선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